

사회상황이야기와 동작활동을 결합한 사회기술훈련이 ADHD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Social Skills Training Combined with Social Stories
and Movement Activities on Children with ADHD

박영아(Young-Ah Park)¹⁾

장세희(Se-Hee Jang)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al skills training combined with social stories and movement activities designed to change the social behaviors of children with ADHD. Six first-grade children with ADHD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program, which was composed of 15 sessions over 2 months. Our results indicated that : (1)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s were reduced after the training. Anxiety was reduced by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Depression, delinquency, and hyperactivity were also reduced, but these did not reac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2) Children's social skills were improved after the training. Self-assertion and self-control were increased by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Cooperation was also improved, but it did not reac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3) Children's social behaviors became more prosocial after participation in the training program. Children were also found to be able to express positive feeling more often, recognize social rules, and explain their ideas regarding friendship.

Key Words : 사회기술훈련(social skills training), 사회상황이야기(social stories), 동작활동(movement activities),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¹⁾ 대전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²⁾ 해수 BFC클리닉 학습치료사

Corresponding Author : Young-Ah Park, Department of Child Studies, Daejin University, Gyeonggido 487-711, Korea
E-mail : parkya@daejin.ac.kr

I. 서 론

과잉 활동성(hyperactivity), 충동성(impulsivity), 부주의(inattention)로 인해 사회, 정서 및 인지 기술에 결함을 가지는 상태를 일컫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ADHD)는 유아기에 출현하지만 학교 입학 후 구조화된 단체 생활을 경험하는 가운데 학교나 또래관계에서의 부적응이나 학업 부진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를 수반하면서 두드러진다.

ADHD 아동은 사소한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며, 대화 내용이 빈번하게 바뀌고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 또, 자기 차례나 질문이 끝나기 전에 말하거나 부적절한 소음을 내거나, 대화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활동을 간섭한다(APA, 2000). 정서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며, 유혹을 거부하거나 욕구를 지연시키는데 문제를 가진다(Hinshaw, Heller, & McHale, 1992). 사회적 측면에서는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 쉽게 좌절하고 대인관계에서 소외되며, 사회기술의 부족으로 고립되는 특성을 보인다(이종범 외, 2002).

우리나라의 경우 ADHD 유병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2008년 현황에 따르면 ADHD 증상을 가진 초중고 학생은 25,429명으로 4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심각하지 않은 상태까지 포함하면 13%를 웃도는데 이 중 초등학생이 67.3%에 달한다(데이터뉴스, 2009. 8. 24).

ADHD는 발견되는 즉시 치료해야 하고 초기에 치료하여 증상이 만성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데(김춘경 · 유지영, 2010),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조기 치료와 최소 2년 이상 지

속적 치료가 중요하며, 만약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 70% 이상이 청소년기까지, 그리고 50-65%는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질 수 있다(매일경제신문, 2010. 9. 2). ADHD의 치료를 위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약물치료는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긍정적인 사회행동을 증가시키지는 못하며, ADHD 증상으로 인해 습관화된 행동패턴을 변화시키거나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약물치료와 함께 다양한 치료법을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Barkley, 1998; Hinshaw, Henke, & Whalen, 1984).

국내에서는 급증하는 ADHD 아동의 수만큼 이 장애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사회기술의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기술 훈련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게임 및 역할극(김소영, 2006; 김인홍, 2007; 박단비, 2007; 서경희, 2010; 이정은 · 김춘경, 2000; 최다영, 2005)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밖에 인지행동기술시연(오혜선 · 채규만 · 김명식, 2007; 조현승, 2004)과 음악 및 미술(유지영 · 전은주 · 김춘경, 2009; 장혜경, 2007) 치료도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리운동놀이(김춘경 · 유지영, 2010)도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시도된 바 있다.

이러한 사회기술훈련들은 ADHD 아동의 사회기술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나, 사회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에 결함이 있는 ADHD 아동에게 있어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습득된 사회기술이 다른 상황에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ADHD 아동으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며, 갈등 상황에서 친사회적인 해결 전략을 학습하여 사회기술을 일반화하여 사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상황이야기의 활용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Gray와 Garand(1993)는 사회상황이야기를 사회상황에 대한 정보와 사회기술 신념을 기술함으로써 아동이 상황을 해석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회인지 전략이라고 정의하면서, ADHD 아동에게 친사회적 행동기술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사회상황이야기는 자폐증(이상복·박계신, 2001; 조재규, 2007; Kuttler, Myles, & Carlson, 1998; Norris & Dattilo, 1999)이나 아스퍼거 장애(김정일, 2004; Sansosti & Powell-Smith, 2006)를 대상으로 주로 실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학습장애(Kalyva & Agaliotis, 2009)에도 적용되고 있으나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상황이야기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술하는데, 특정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상황에서 바람직한 반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사회적 기대를 강조함으로써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므로(Gray & Garand, 1993),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사회기술훈련은 교육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동의 흥미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주의집중력이 낮고 신체 움직임이 많은 ADHD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아동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접

근할 수 있는 동작활동을 계획한다면, 다른 아동들과 함께 신체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방법과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익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작활동이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동작활동을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에 적용한 예는 김준경과 유지영(2010)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기술훈련에 있어 이러한 제한점들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ADHD 아동에게 사회상황이야기와 동작활동을 결합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즉, 사회상황이야기를 제시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상황 해석 능력과 구체적인 행동기술을 가르치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훈련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의 흥미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동작활동을 통해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하게 하고,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신체접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협력, 공유, 감정이입, 배려, 돕기 등의 친사회적 전략을 학습하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사회기술훈련 참여에 따라 ADHD 아동의 행동 특성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사회상황이야기와 동작활동을 결합한 사회기술훈련은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사회상황이야기와 동작활동을 결합한 사회기술훈련은 아동의 사회기술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사회상황이야기와 동작활동을 결합한 사회기술훈련은 아동의 긍정적인 사회행동을 증가시키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N구에 위치한 한 신경정신과에서 DSM-IV의 진단기준에 의하여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및 충동성 증세 중 여섯 가지 이상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과 일치하지 않은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ADHD로 진단받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이다. 평균 연령은 7세 5개월($SD = 4.7$ 개월)이었으며, 이 중 남아가 4명, 여아는 2명이었다. 이 아동들은 병원에서 약물치료와 주 1회 학습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들로서 부모의 희망 하에 본 프로

그램에 참여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학령기에 접어들어 ADHD가 뚜렷이 식별되는 시기이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3학년 이전 조기 치료의 중요성(매일경제신문, 2010. 9. 2) 때문이다.

본 훈련의 실시예 앞서 이루어진 부모와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각 아동의 특성 및 문제행동들을 요약하면 표 1과 다음과 같다.

2. 연구도구

1) 문제행동

<표 1> 대상 아동의 사회기술훈련 실시 전 행동 특성 ($N = 6$)

아동	행동 특성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력결핍 : 학교 과제나 학교내외 활동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실수를 함. 과제나 놀이 활동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움, 자신에게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함. • 과잉행동 :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함. • 충동성 :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을 하며, 차례를 기다리기 어려움.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놀림. • 기타 :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맥락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임.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친구가 야단맞는 상황에서 웃거나 놀리는 행동을 많이 나타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력결핍 : 학교 과제나 학교내외 활동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실수를 함. 지시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음. 학교 과제나 일상적인 일을 완수하지 못함. 과제와 활동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을 보임.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과제에 참여하기를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원하지 않음. 과제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예 : 학교 숙제, 연필, 책 등)을 잃어버림,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산만해짐. 매일의 활동들을 자주 잊어버림. • 기타 : 사회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하는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함.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이나 말을 반복하여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친구들이 놀리거나 놀아주지 않으면 무조건 껴안거나 뽀뽀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또래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음.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력결핍 : 자신에게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함. 지시를 따르거나 학교 과제나 일상적인 일을 완수하지 못함. 과제와 활동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을 보임. • 충동성 :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을 함. 차례를 기다리기 어려움. • 기타 :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또는 게임에서 지거나 화가 나면 오랜 시간 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함. 엄마에게 의존적이고 화가 날 때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하며, 엄마가 없을 때는 죽을 것처럼 힘들다고 주변사람한테 말하면서 엉엉 우는 행동을 자주 보임.

<표 1> 계속

아동	행동 특성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력결핍 : 학교 과제나 학교내외 활동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실수를 함. 과제나 놀이 활동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움. 자신에게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함.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산만해짐. • 과잉행동 :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도 계속 몸을 움직임. ‘끊임없이 활 동하거나’ 또는 ‘마치 모터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함.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함. • 충동성 :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을 함. 차례를 기다리기 어려움. • 기타 :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만소리를 하거나 미숙하게 대처하고, 갑자기 화를 내는 행동을 자주 나타냄. 화가 나면 그 자 리에서 떼쓰고 부모에게 말을 동동 구르며 짜증을 부리며, 화가 날 때 엄마를 때리거나 발로 차기도 함.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력결핍 :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오랫동안 심사숙고 하는 것을 싫어 함. 과제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잃어버림.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산만해짐. 매일의 활동들을 자주 잊어버림. • 기타 : 친구를 잘 놀리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울고 있을 때 웃고 즐거워하는 등 사 회적 맥락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임. 한 명의 여자 친구와만 놀고 다른 친구와는 잘 어울리지 못함.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력결핍 :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실수를 함. 과제나 놀이 활동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움. 지시를 따르거나 학교 과제, 부모 의 지시 등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과제에 참여하기를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원하지 않음. 과제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예 : 학교 숙제, 연필, 책 또는 도구들)을 자주 잃어버림. • 과잉행동 : 부적절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뛰어다니거나 쉽게 흥분함. 놀이나 조용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보임. • 충동성 : 차례를 기다리기 어려움. 대화나 게임에 끼어들어 다른 사람들을 자주 방해함. • 기타 : 전반적으로 신체 움직임이 둔하며 고집이 세고 미성숙한 행동을 보임. 대개 한 두 살 어린 아이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요구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공격적인 행동을 함.

아동의 행동, 정서, 인지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아동인성검사(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 KPI-C)를 실시하였다. KPI-C는 Wirt, Lachar, Klinedisnt와 Seat(1984)가 개발한 아동인성검사를 김승태 등(1997)이 한국 아동에 적합하게 표준화한 것이다. 이 검사는 아동의 정신과적인 문제를 선별하고 진단하기 위한 검사 도구로서 최근 6개월간 아동과 함께 생활한 보호자가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타당도 척도(4개), 전반적 적응력을 측정하는 자아탄력성 척도(1개), 발달 영역 척도(2개), 정서 영역 척도(2개), 신체화 척도(1개), 행동 영역 척도(2개), 대인관계 영역 척도(2개), 정신증 척도(1개), 자폐증 척도(1개) 등 16개 척도에서 총

25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기술훈련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서 영역(불안 척도22문항, 우울 척도 23문항)과 행동 영역(비행 척도 24문항, 과잉행동 척도 24문항)에 한정하여 측정하였다. 불안 척도는 자연현상이나 동물, 대인관계, 혹은 사회관계에서의 두려움이나 긴장을 측정하며, 우울 척도는 우울함, 의기소침함, 울음, 사람이나 활동에 대한 무관심을 측정한다. 또, 비행 척도는 반항, 불복종, 공격성, 적대감, 거짓말, 도벽 등의 비행이나 품행 상의 문제를 측정하며, 과잉행동 척도는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 및 이에 수반되는 학습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측정한다.

2) 사회기술

아동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반응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사회기술은 Gresham과 Elliot(1990)의 교사용 SSRS(Social Skill Rating System)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협력(cooperation), 자기주장(self-assertion), 자기통제(self-control) 등 세 하위 요인별로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협력은 집단 활동에 잘 참여하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주장은 또래에게 칭찬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통제는 놀이에서 순서를 지키거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뜻한다.

각 항목은 0점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1점 '가끔 나타낸다', 2점 '자주 나타낸다'의 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측정은 병원에서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학습치료사에게 의뢰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92였다.

3) 아동의 사회행동 분석

사회기술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아동이 또래와 활동하는 가운데 친사회적 행동,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등 긍정적인 사회행동이 증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 회기의 진행 내용

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 아동들의 부모 면담을 통해 아동의 가족생활이나 친구관계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대인행동에도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3. 연구절차

1)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은 사회상황이야기와 동작활동을 두 개의 축으로 하여 총 15회기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상황이야기는 사회상황을 기술하는 설명문,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반응을 알려주는 조망문,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을 설명하는 지시문 등의 문장유형들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Gray (1998)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다. 사회상황이야기는 훈련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한 15회기를 제외한 1회기부터 14회기까지 매 회기 다른 내용으로 구성하였는데, 부모 및 아동과의 면담이나 아동 관찰을 통해 수집된 정보, 그리고 박현옥·김은주와 유숙렬(2004)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내용을 선정하였으며, 습득된 지식과 기술을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표 2>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주제	활동목표	회기	제목	활동내용
규칙을 지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속에서 필요한 규칙을 알아본다. 규칙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한다. 규칙 지키기의 이점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1	집에서의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소개 자기소개 집에서의 규칙 지키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2	학교에서의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 학교에서의 규칙 지키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뜨거운 감자 전달하기

<표 2> 계속

주제	활동목표	회기	제목	활동내용
자신을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한다. •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한다. 	3	이럴 땐 이렇게 말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장점 말하기 • 이럴 땐 이렇게 말해요 • 카드 읽고 감정표현하기 • 좋지 않은 감정은 모두 버려요
		4	나의 생각을 말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친구가 가진 능력이나 장점 말하기 • 나의 생각을 말해요 • 카드 읽고 감정표현하기 • 의자 나누어 앉기
공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 •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 다른 사람에게 심하게 장난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5	다른 사람을 이해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으로 표현하는 감정 알아맞히기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요 • 고민 상담해주기 • 몸으로 느끼는 웃음 릴레이
		6	다른 사람과 함께 느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으로 표현하는 속담 알아맞히기 •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껴요 • 친구들의 특성 알아맞히기 • 짝과 몸을 맞대고 움직이기
상황에 맞는 행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행동이 있음을 이해한다. •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7	나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귓속말 전달하기 • 행동을 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한 다음에 행동해요 • 가족을 기쁘거나 슬프게 만든 나의 행동 • 줄넘기와 림보
		8	예의 바르게 행동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에 낱말을 첨가하여 이어 말하기 • 어느 곳에서나 예의 바른 행동이 필요해요 •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기쁘거나 슬프게 만든 나의 행동 • STOP 신호에 따라 동작 멈추기
갈등 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독립적으로 선택한다. •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9	독립적으로 행동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알아맞히기 • 스스로 결정해요 • 긍정적인 또래압력과 부정적인 또래압력 • 짝과 함께 옆으로 구르기
		10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음을 보고 낱말 만들어 문장으로 연결하여 말하기 •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 싸움을 피하는 방법 • 오리 오리 거위
결과를 받아들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인 결과를 받아 들인다. •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한다. 	11	결과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명 짓기 • 결과를 인정해요 • 감정의 온도계 • 기다란 뱀
		12	결과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점 더 긴 문장 만들기 •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법 • 감정의 온도계를 낮추는 방법 • 고양이와 쥐

<표 2> 계속

주제	활동목표	회기	제목	활동내용
좋은 친구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인지 이해한다. •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기술을 연습한다. 	13	왜 친구가 필요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 엠 그라운드 • 친구가 필요해요 • 우연일까? 일부러 그랬을까? • 커다란 무 뽑기
		14	좋은 친구가 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음 땡 •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 • 친구 지도 그리기 • 홀라후프 통과하기
활동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배우고 연습한 내용들을 생활속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해본다.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자신에 대한 평가 • 새로운 다짐

사회상황이야기는 이야기만을 읽어주는 것보다 관련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상황이야기와 관련된 경험과 생각에 대해 이야기나누기를 하였다. 이야기나누기의 내용은 안동현·김세실과 한은선(2004), 김소영(2006)의 활동들을 참고로 구성하였다. 또한, 동작활동은 Smith(1993)와 Pica(2006)가 고안한 활동들을 참고로 하였다. 7가지 주제로 활동을 구성하였으며, 각 주제에 대해 2회기 동안 관련 내용들을 다루었다. 회기별 활동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활동은 이완활동, 사회상황이야기, 동작활동, 마무리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완활동은 아동들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키며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사회상황이야기는 매 회기의 활동 제목에 따라 다른 이야기들로 구성하였는데, 상황을 묘사하는 30cm×20cm 크기의 그림 자료를 먼저 보여주면서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보도록 한 다음 문장을 보여주고 읽어준 후 함께 읽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 관련 경험이나 생각에 대해 이야기나누기를 하였다. 그 후 동작활동을 통해 짝이나 집단과 함께 활발하게 신체를 움직이는 가운데 친사

회적 개념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 날의 활동내용과 자신의 수행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한 회기에서 진행된 활동의 예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2) 사전검사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하기 전 1주간 부모로 하여금 아동의 문제행동을, 그리고 학습치료사로 하여금 아동의 사회기술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3) 사회기술훈련의 실시

본 훈련은 2009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 2회기씩 약 2개월에 걸쳐 총 15회기로 진행되었다. 각 회기에서 소요된 시간은 약 60분이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전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4) 사후검사

사회기술훈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훈련 실시 후 1주간 부모에게 아동의 문제행동을, 그리고 학습치료사에게 아동의 사회기술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표 3> 활동의 예 : 3회기 '이럴 땐 이렇게 말해요'

순서	활동내용
이완 활동	<p>활동명 : 나의 장점 말하기 - 자신이 가진 남다른 능력이나 장점 이야기하기</p>
사회적 상황 이야기	<p>사회상황이야기 : 이럴 땐 이렇게 말해요 준비물 :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 그림 활동방법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떤 표정인지,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2. 사회상황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함께 읽는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짜증나고, 행복하고, 무섭고, 놀랍고, 자랑스럽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고,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를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이해한다면 싸움을 피할 수 있고, 나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나는 더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공손한 태도로 나의 감정을 말하겠습니다. 화가 날 때도 소리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내가 화가 났다고 말하고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3. 이야기나누기를 한다. 너희들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니? 언제 그런 감정을 느끼니? 왜 그런 감정을 느끼니?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것에 대해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기분을 알아줄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말 대신에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p>활동 1 : 카드 읽고 감정 표현하기 활동방법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한 상황에 대해 쓰인 카드(예 : 받고 싶었던 생일 선물을 받았다)를 읽고 맞은편에 앉은 아동에게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말 대신 신체로 표현 하여 알아맞히도록 한다. 2. 카드를 함께 읽으면서 각 상황에서 말로 어떻게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3. 카드의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말해보도록 한다.
동작 활동	<p>활동 2 : 좋지 않은 감정은 모두 버려요 준비물 : 신문지, 크레파스, 마스킹 테이프 활동방법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음에 담아두면 좋지 않은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2. 그러한 감정들을 언제 느꼈는지 생각해보면서 부정적인 감정과 사건들을 신문지 위에 크레파스로 쓰도록 한다. 3. 신문을 구겨 공처럼 뭉쳐놓는다. 4. 두 팀으로 나누어 바닥에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한 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선다. 5. 신호를 주면 부정적인 감정을 날려 버리듯 신문지 공을 반대편으로 던진다. 6. 다음 신호까지 자기 팀 쪽에 신문지 공이 적게 남은 팀이 승리한다.
마무리	<p>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 오늘 어떤 내용을 배웠니? - 어떤 점이 재미있었니? - 어떤 점이 힘이 들었니? - 오늘 너희들은 활동에 잘 참여하였니? - 오늘 규칙을 가장 잘 지킨 친구는 누구였니?</p>

4. 자료 분석

사회기술훈련 실시 전-후 아동의 문제행동 및 사회기술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부호순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 훈련의 진행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을 전사하여 각 아동이 나타내는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추적 분석하였다.

III 결과분석

1. 문제행동의 변화

사회기술훈련 참여에 따른 문제행동의 사전-사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Wilcoxon 부호순위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안은 사회기술 훈련 참여 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2.21, p < .05$). 우울과 비행은 훈련 참여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과잉행동은 사전-사후 간에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문제행동의 Wilcoxon 부호순위 검증 결과 ($N = 6$)

척도	사전 <i>M(SD)</i>	사후 <i>M(SD)</i>	<i>Z</i>	<i>p</i>
불안	47.17(13.09)	43.50(12.45)	-2.21	.03
우울	49.07(9.83)	47.17(9.83)	-1.15	.25
비행	51.33(14.05)	47.33(11.79)	-.41	.68
과잉행동	52.50(14.76)	52.00(13.59)	-.54	.59

2. 사회 기술의 변화

사회기술훈련 참여에 따른 사회기술의 사전-사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Wilcoxon 부호순위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와 같이 사회기술 전체 값($Z = -2.20, p < .05$), 사회기술의 하위 요인 중 자기주장($Z = -2.23, p < .05$)과 자기통제($Z = -2.03, p < .05$)는 사회기술훈련 참여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반해, 협력은 훈련 참여 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 사회기술의 Wilcoxon 부호순위 검증 결과 ($N = 6$)

요인	사전 <i>M(SD)</i>	사후 <i>M(SD)</i>	<i>Z</i>	<i>p</i>
협력	2.00(.55)	2.28(.29)	-1.47	.14
자기주장	2.03(.28)	2.40(.23)	-2.23	.03
자기통제	1.78(.63)	2.20(.36)	-2.03	.04
전체	1.94(.42)	2.29(.24)	-2.20	.03

3. 아동의 사회행동 변화

아동들은 회기가 진행될수록 훈련에 참여하는 날을 기다리고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점차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인식 능력이 향상되었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활동을 하는 동안 문제행동이 줄어들면서 함께 활동하는 또래들과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사회기술훈련이 진행됨에 따른 개별 아동들의 사회행동 변화를 서술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아동의 사회행동 변화 (N = 6)

아동	시기	아동의 반응
A	전반기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을 치며 몸을 크게 흔들며 웃고, 사회상황이야기를 위해 제시한 그림을 보자마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려요?”, “누가 그렸어요?”와 같은 질문들을 참지 못하고 계속하였음. 다른 아동들이 말하는 동안 끼어들려고 하거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말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음. 감정을 신체로 표현하는 활동에서는 지나치게 과장된 행동을 하여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음.
	후반기	훈련 초기에는 활동 속도가 느린 B아동을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지만, 훈련이 진행되면서 B아동과 잘 어울리고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웃기도 하였음. 별명 짓기 활동에서 다른 아동이 이 아동에게 “김똥개”라고 말하였을 때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강아지로 할래요?”라고 말하였음. 훈련이 진행될수록 다른 아동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었음. 친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나누기를 할 때 “친구가 없으면 계속 공부만 해야 하고 집에서만 놀아야 해요”, “좋은 친구가 되려면 사이좋게 놀아야 해요”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은 다른 친구들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음.
B	전반기	말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조용하게 앉아있었지만 집중 시간이 짧아 다른 아동들이 보이는 반응을 따라하거나 쉽게 산만해지는 경향을 보였음. 동작활동에서는 동작을 한 바자 느끼게 하였고 실수를 많이 하였음. 자신이 하려던 말을 다 끝맺지 못했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다른 아동들이 이야기하는 중에도 계속 끼어들려고 하였음.
	후반기	친구들과 함께 마시고 싶다는 음료수를 사와서 다른 아동들에게 친절하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였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보였던 문제행동들이 줄어들었음.
C	전반기	미숙한 문제해결 방식 때문에 활동 진행시 불안하고 경직된 태도를 보였으며, 눈 맞춤 시간이 짧아서 대화를 하다가도 다른 곳을 보는 경우가 많았음. 사회상황이야기를 들을 때 코를 씹룩거리거나 끼어들려는 시도를 많이 하였으며, 질문을 하면 얼어 버린 듯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만약에 우리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잔소리를 하면서 불을 뿜어요”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였음.
	후반기	다른 아동들을 보면서 자주 웃었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였으며 눈 맞춤 시간이 길어졌음. 별명 짓기 활동에서 자신의 별명을 오리라고 소개하면서 이 별명을 갖게 된 배경을 즐겁게 설명하였음.
D	전반기	다른 아동들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었고, 이 아동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었을 때는 안하려고 하면서 딴 곳을 쳐다보았음.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어떤 감정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뛰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장난치고 있어요”라는 식으로 감정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그림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반응하였음.
	후반기	다른 아동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행동이 나타났으며, 활동을 할 때 규칙을 잘 지키고 발표하는 순서를 잘 기다려 주었음. “친구가 없으면 놀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였음.
E	전반기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해서 말하고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활동의 진행을 방해하였음. 다른 아동들의 반응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 다른 아동들이 발표를 할 때 어려움을 보이면 자신은 잘 할 수 있다고 나서기도 하였으며, 다른 아동들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중에 “전 시험에서 10개 중에 1개 틀렸어요”라는 식으로 자랑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냈음.
	후반기	눈 맞춤을 잘하였고 바른 자세로 활동에 참여하였음. 다른 아동들이 발표할 때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친절하게 나서는 등 다른 아동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음.

<표 6> 계속

아동 시기	아동의 반응
전반기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서툴렀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나타냈음. 이야기나누기나 동작활동을 할 때 양보를 하지 않으려 하고 때를 썼음.
F 후반기	훈련이 진행될수록 다른 아동들에게 귀엽다고 말하거나 짝이 되려고 하는 등 친근감을 보였으며, 친구들의 장점을 말하도록 하는 활동에서 옆의 아동이 발표를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00은 대답을 잘하잖아”라고 힌트를 주기도 하였음.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상황이야기와 동작활동을 결합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ADHD 증상을 보이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사회기술 및 긍정적인 사회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상황이야기와 동작활동을 결합한 사회기술훈련은 ADHD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부분적으로 효과적이었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불안, 우울, 비행, 과잉행동 등 네 가지 영역을 측정하였는데, 이 중 불안은 훈련 실시 전-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본 훈련은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들이 본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상황에서의 두려움이나 긴장을 완화시키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우울과 비행은 유의한 수준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후검사에서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ADHD 아동들이 우울감과 소외감을 덜 느끼게 되었으며,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과잉행동은 훈련 실시 전-후 간에 차이가 없었

데,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회기술훈련이 문제행동의 억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회기술의 향상을 더욱 강조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문제행동의 감소 양상은 아동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들의 보고에 따르면, D아동은 훈련에 참여하면서 문제행동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매회기마다 활동이 끝난 후 어머니에게 그 날의 활동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으며 특히 동작활동을 재미있어하여 집에서도 반복하였다. 이에 반해 F아동은 훈련 참여에 따라 문제행동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정도나 기질적 요인 등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사회기술훈련에 대한 어머니들의 관심과 참여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즉, D아동의 어머니는 본 훈련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면서 아동에게 활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매회기 접촉할 때마다 문제행동의 호전 양상을 보고하거나 훈련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상대적으로 취업모인 F아동의 어머니는 첫 회기와 종결 회기에만 아동과 함께 방문하였고 본 훈련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은 ADHD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훈련뿐 아니라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DHD 아동의 부모를 상담하다 보면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방임적이다가 도 화가 나면 자녀

를 심하게 혼내거나 부모 자신의 우울감으로 인해 아동의 감정에 민감하지 못한 경우를 빈번하게 접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지 않으며, 행동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여 충동적이거나 인내심이 부족해지기가 쉽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양육에 있어 분명한 기준과 일관성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사회기술훈련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면서 자녀의 활동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한 경우 아동의 문제행동이 많이 감소된 사례로 미루어보아 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ADHD 아동의 사회적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상황이야기와 동작활동을 결합한 사회기술훈련은 ADHD 아동의 사회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기술훈련이 ADHD 아동의 사회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소영, 2006; 김인홍, 2007; 김춘경·유지영, 2010; 박단비, 2007; 서경희, 2010; 오혜선·채규만·김명식, 2007; 유지영·전은주·김춘경, 2009; 이정은·김춘경, 2000; 장혜경, 2007; 조현승, 2004; 최다영, 2005)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게임 및 역할극, 인지행동기술시연, 음악 및 미술, 심리운동놀이 등을 활용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상황이야기와 동작활동을 사회기술 훈련방법으로 적용하였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훈련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사회기술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세 하위요인 모두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증가하였으나 자기주장과 자기통제만 사전-사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훈련 실시 후에 아동들은 또래와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누고 또래를 칭찬하거나 자기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

는 등 자기주장이 증가하였으며, 다른 아동의 말을 중단시키거나 대화에 끼어들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이 줄어든데 반해 활동의 순서와 규칙을 지키고 다른 아동의 말을 경청하며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등 자기통제 능력이 향상되었다.

반면, 협력은 사전-사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아동들이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동작활동에서 서로 짝이나 집단을 이루어서 매우 우호적이고 협력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점에 비추어볼 때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향상을 살펴볼 수 없었던 이유는 SSRS 검사의 측정 내용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회기술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SSRS 검사의 협력 요인은 아동이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중에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면서 다른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 이를 평정한 학습치료사는 아동을 일대일로만 접촉하였기 때문에 대상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함께 활동하는 장면을 관찰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셋째, 사회상황이야기와 동작활동을 결합한 사회기술훈련은 아동의 사회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매 회기에서 아동들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훈련이 진행되면서 아동들이 점차적으로 사회상황 및 다른 아동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화가 나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참고 문제해결방안을 찾는 모습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아동들과의 눈 맞춤, 미소 짓기, 말 건네기, 칭찬하기, 규칙지키기 등 긍정적인 사회행동의 빈도가 증가하였고, 활동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행동들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의 보고에 따르면,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들과의 갈등의 빈도가 줄어

들었으며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 훈련 종결시점 즈음에 A아동은 같은 반 친구의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다른 친구들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잘 참고 순서를 기다려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B아동은 친구들이 싫어하는 행동이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행동이 줄어들었다고 하였으며, C아동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D아동은 짜증을 덜 내었고 혼자서 하던 칼싸움 놀이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를 즐겨하였으며, E아동은 늘 함께 놀던 한 명의 여자 친구 이외에 남자 아동들과도 어울려 놀았고 같은 반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아 놀러가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ADHD 아동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사회상황을 해석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상황이야기와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여 능동적인 참여를 이끄는 가운데 또래 간 상호작용의 증가를 도모하는 동작 활동을 함께 실시한 결과, 아동의 사회기술 및 긍정적인 행동의 증가를 이끌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문제행동의 감소와 관련해서는 부분적인 효과만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재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과 훈련의 효과를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나 지지 또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부모교육을 병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한편, 본 연구는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사회상황이야기 또는 동작활동만을 적용한 대조집단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의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훈련 이후 추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의 지속성을 살펴볼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 대상

아동들이 신경정신과의 약물 치료와 학습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동의 행동 변화를 훈련을 통한 결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본 연구에서 시도된 활동내용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김소영(2006). ADHD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사회 기술훈련의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승태 · 김지혜 · 송동호 · 이효경 · 주영희 · 홍창희 · 황순택(1997). **한국 아동인성검사**. 서울: 한국 가이던스.
- 김인홍(2007).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사회기술훈련의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6(4), 420-428.
- 김정일(2004). 아스퍼거장애 유아의 부적응 행동 중재를 위한 또래개입 사회상황 이야기 효과. **특수교육연구**, 11(2), 425-445.
- 김춘경 · 유지영(2010). 심리운동놀이치료 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과 사회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4(1), 51-65.
- 박단비(2007). 정서지능 향상 교육이 ADHD 성향 아동의 정서지능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옥 · 김은주 · 유숙렬(2004).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상황이야기 개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9(2), 171-198.
- 서경희(2010). 또래관계 중심 중재가 ADHD 아동의 우정 발달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질적·양적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6(1), 43-64.
- 안동현 · 김세실 · 한은선(2004). **주의력결핍 장애아동의 사회기술훈련**. 서울: 학지사.
- 오혜선 · 채규만 · 김명식(2007). ADHD 성향 아동의 사회기술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컴퓨터

- 터 영상 프로그램과 심리적 시연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6(1), 21-37.
- 유지영 · 전은주 · 김춘경(2009). ADHD 아동의 문제 행동 감소 및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한 음악과 미술치 료프로그램의 효과성 비교연구. **정서 · 행동장애연구**, 25(3), 73-92.
- 이상복 · 박계신(2001). 자폐성 아동의 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상황이야기 중재 연구. **정서 · 학습장애연구**, 17(1), 355-380.
- 이정은 · 김춘경(2000). ADHD 아동을 위한 사회기술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적용연구. **놀이치료연구**, 4(2), 59-77.
- 이종범 · 박순재 · 정성덕 · 김진성 · 서완석 · 배대석 (2000). 학습장애를 동반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임상적 특징. **생물치료정신의학**, 8(2), 271-281.
- 장혜경(2007). 사회기술훈련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이 ADHD 아동의 사 회기술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4(4), 669-690.
- 조재규(2007). 자폐성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비디오 활용 사회상황이야기 중재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6(3), 23-49.
- 조현승(200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 동에 대한 인지-행동 수정 프로그램의 효과-또래관계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8(1), 95-116.
- 최다영(2005). 집단 게임놀이치료과 ADHD 아동의 부적응 행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재활 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ision; DSM-IV-TR). Washington, DC : Author.
- Barkley, R. A. (1998).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A handbook for diagnosis and treatment* (2nd ed.). New York : Guilford Press.
- Gray, C. (1998). Social stories and comic strip conversation with students with asperger syndrome and high-functioning autism. In E. Schopler, G. B. Mesibov, & L. J. Kuncze (Eds.), *Asperger syndrome or high-functioning autism?* New York : Plenum Press.
- Gray, C., & Garand, J. D. (1993). Social stories : Improving responses of students with autism with accurate social information. *Focus on Autistic Behavior*, 8, 1-10.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 Pines, MN : American Guidance Service.
- Hinshaw, S. P., Heller, T., & McHale, J. P. (1992). Covert antisocial behavior in boys with attention -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External validation and effects of methylphenidat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274-281.
- Hinshaw, S. P., Henker, B., & Whalen, C. K. (1984). Self-control in hyperactive boys in anger -inducing situations :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training and methylphenidat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55-77.
- Kalyva, E., & Agalitos, I. (2009). Can social stories enhance the 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skills of children with LD?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0, 192-202.
- Kuttler, S., Myles, B. S., & Carlson, J. K. (1998). The use of social stories to reduce precursors to tantrum behavior in a student with autism.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3, 176-182.
- Norris, C., & Dattilo, J. (1999). Evaluating effects of social story intervention on a young girl with autism.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4, 180-187.
- Pica, R. (2006). *Great games for young children*. Beltsville, MD : Gryphon House, Inc.
- Sansosti, F. J., & Powell-Smith, K. A. (2006). Using social stories to improve the social behavior of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8(1), 43-57.
- Smith, C. A. (1993). *The peaceful classroom*. Beltsville,

MD : Gryphon House, Inc.
Wirt, R. D., Lachar, D., Klindisnt, J. K., & Seat, P. D. (1984). *Multidimensional description of child personality : A manual for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Los Angeles :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데이터뉴스(2009. 8. 24). 지난해 초중고 ADHD 환자 2만5429명...4년새 4 배 ↑. [http : //www.datanews.co.kr](http://www.datanews.co.kr)에서 2010년 10월 4일 출력.

매일경제신문(2010. 9. 2). ADHD, 치료 방치하면 어른 이 되도 문제. [http : //www.mk.co.kr](http://www.mk.co.kr)에서 2010년 10월 11일 출력.

2010년 10월 31일 투고, 2011년 1월 3일 수정
2011년 1월 19일 채택